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樹木園 稀貴 식물 共産圈서도 탐내



藥草園선 4백여종 生藥材 키워

母校의 수목원, 약초원, 생약연구소 시험장에는 1천6백여종의 樹種과 4백여종의 藥草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樹木園에 있는 미선나무, 개느삼 등은 우리나라에 서만 자라고 있는 世界的 희귀 식물이다. <사진> ① 약초원 ③ 각시원추리 ④ 세계적 희귀 식물 매자나무 ⑤ 생약재 天名精



冠岳春秋

綠陰의 계절, 어디를 보나 푸르다 못해 푸르기로 山野가 뒤덮여 있다. 元亨利貞, 윤이 터 꽃피고, 자라고, 열매 맺고, 갈무리하는 四季節 가운데 가을로 후의 기운이 최고도로 발휘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冠岳山 서남쪽 골짜기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母校의 樹木園에는 총 1천6백여종의 식물들이 이름표가 달린 채 한창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 실물을 알고 싶어서는 現場學習터 구실을 하고 있다. 개중에는 보통 군데에서는 보지 못한 종류도 있다. 일명 黃藥木이라고도 하는 매자나무도 그 중의 하나로, 그것은 세계적 稀貴植物이라고 안대자는 설 명했다. 일면 草綠의 바닥에 산뜻하게 핀 노란 나리꽃처럼 생긴 꽃 무리가 눈길을 끌었다. 각시원추리라는 꽃말이 눈에 띄었다.

始興郡 蘇來面 新川里에 있는 2만여평의 母校 藥草園과 生藥研究所의 약재배 시험장에는 총 3,244백종의 약초들이 역시 꼬리표가 달린 채 각기 특징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중의 天名精 일명 담배풀이라고 하는 풀은 解熱, 去痰, 止血, 利尿에 특효가 있다고 했다. 불에 핀 꽃은 지금 열매를 달고 있고, 花蕾들은 지금 한창 요요한 자태를 자랑하기도 한다.

푸르름과 꽃과 열매, 이들은 한창 절정을 이룰까마와 학문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을 연상시킨다. 벌써 머지않고 병들 없이 늙을하게 자라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同窓會도 1975년 母校의 종합원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날로 커지고 內實이 기해져, 발전의 터전인 會館이 마련되고 會報도 5단부를 발송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라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더욱 雄飛를 해연진으로 기개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불타르지 못한다면 雄飛 전 단계에서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同窓會는 그 고비를 돌파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지난 7월 1일 금강아이티-AT 16비트 1대를 9백만원의 회관 3층 회 사무실에 설치한 것이다. 이 컴퓨터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본격 업무용 컴퓨터인 IBM-PC/AT로서, 전 1만여종의 소프트웨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互換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형 컴퓨터와의 온라인 터미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꽃 · 열매 · 컴퓨터

앞으로 이 컴퓨터는 同窓會의 사무를 눈부시게 극대화하여 명실함께 同窓會의 雄飛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선 會報 발송 대상 회원 5만명의 명단을 주소와 함께 입력할 것이 다음으로 15만 3천명에 이르는 전 회원의 명단을 입력하여 名簿作成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결과 등 사무의 자동화와 會費納付 처리와 등 상환의 과의 聯繫支拂의 실태 파악 등 하다 한 일을 이 기계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產業界나 經濟界, 科學界의 科學化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세계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 근대적手工業의인 경연에 머물러 있는 분아가 허다하다. 자칫하면 설비등 관제로 낙후되기 쉬운 사무분야에 이러한 尖端機器를 도입한 용단에 대해 크나큰 찬사를 보낸다. 반갑고 무죄인 일이다.

기계는 확실히 사람의 몇 배의 능력을 올린다. 그러나 그 기계를 부리는 것은 사람이다. 입력이 잘 못되면 기계는 솔직한 반응을 알 수 없다. 기계에는 기계적인 입말을 수행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기계에 의지하고, 그 판단까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물론 몇 가지 複合要因을 입력시켜 놓을 경우 그 상환에서의 기계적 반응을 얻어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기계보다 더욱 精緻한 것이 바로 인간의 두뇌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헤아려 슬기롭게 처리할 것이다.

기계의 힘을 過信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문교부에서 大入 예비고사 내지 학고사의 채점을 物量의 過多를 이유로 컴퓨터를 採選多型으로 못박았던 일이다. 넷중에서 맞는 답 하나를 골라내는 이러한 客觀式 考查法은 學科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지 못하며, 고령과 창의력, 서술력을 기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결점점 단점을 발견함으로써 교육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로지 기계의 힘에 의지해 보았던 것이다. 편의 때문에 시정될 수 있는 기계의 편의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득을과 꽃과 열매도 제 구실이 가능하게 컴퓨터가 슬기롭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신상변동사항 즉시 通報하도록”

수요적인 목적 업무용 컴퓨터로서 대형 컴퓨터와
의는 라인 터미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컴퓨터는 금전사제
품으로서 高速도매트릭
스프린트機를 포함, 약
9백만원에 구입했다.
한편 컴퓨터 도입으로
동창회 업무의 신속화와
동창회 업무의 자동화
를 위해 구입한 컴퓨터
대를 일차, 본격적인
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 작업은 6개월간에
완료 전망이다.

있게 되었다.

電算化 작업은 1·2 단계로 나눠 우선 任員과 동창회보를 우송하고 있는 5만여명을 入力시켜 처리될수 있고 동문들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할수 있으나 여기에서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료가 입력되어

李相赫(58년法大卒
· 元會이사· 元會사)이 지



아하기 때문에 동창회로서는 가장 정화한 자료수집이 요청되고 있어 동문들 각자가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동창회와 유기적으로 연락이 닿고 있는 즉 동창회를 통해 받고 있는 동문의 협

李相赫(58년法大卒)
· 元會이사· 元會사)이 지



아하기 때문에 동창회로서는 가장 정화한 자료수집이 요청되고 있어 동문들 각자가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동창회와 유기적으로 연락이 닿고 있는 즉 동창회를 통해 받고 있는 동문의 협

李相赫(58년法大卒)
· 元會이사· 元會사)이 지



아하기 때문에 동창회로서는 가장 정화한 자료수집이 요청되고 있어 동문들 각자가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동창회와 유기적으로 연락이 닿고 있는 즉 동창회를 통해 받고 있는 동문의 협

李相赫동문 冠岳會에

4백만원 出捐

바둑·장기대회 盛了

우승 崔安基・宋竣勝・宋在烈등문

대 **사대** **장기대회**는 **사대**
동창회의 **연례행사**중의 하
나로 **登山** 및 **남시대회**와
더불어 **매년** **치루**되고 있
는 **중요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朴智洙**회
장을 **비롯** **약** **50여명**의
때마다 **김탄이** **타져나오**
물론이 **참가한** **가운데**
·B조로 **나누어** **열전**을
벌어었다.
이날에 **비해** **기량**이 많
이 **향상**되어 **종처럼** **우**
열을 **가리**가 **힘을**었는
데 **이따금** **모수**가 **나올**
때마다 **김탄이** **타져나오**

상오 9시 시작하여 장 10시간여에 걸쳐 接戰을 벌인 이날 대회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바둑

△A組 △기성△崔安基 △기인△曹爽晚 △기현△李宰一 △아차상△鄭東鉉 △B組 △기성△宋榮勝 △기인△崔在根 △기현△鄭振和 △아차상△金中彥

◇장기

△기현△宋王烈 △기현△李宰一 △기현△鄭東鉉 △기현△崔在根 △기현△鄭振和 △기현△金中彥

총장실 亂入 사태 同門끼리 송구

趙完圭 모교총장 談話文 발표

이제 발판이다.

趙完圭도 교초장은 지
단할 일부 학생들의 총
모집 亂入 시배와 관
교모교를 아껴주신은 同
門 여러분께 크나큰 심
려를 끼쳐 드리게 되
어 송구스럽게 그지없
으며 정중한 유감의뜻
을 표한다」는 내용의
書를 보냈다

심분 이해한다(면서)는
교과 이 상황에까지이
르게 된대 대하여 大
學의 책임을 맡은 사
람으로自愧하는 마음
을 할수 없다(고) 피로울
을 밝히고 있다.

趙 초장은 이어 『저나
진교수들이 마련한

이른바 自律學則에 따라 각 대학의 敎授會가 신중하게 신의하여 그들의 指導적인 敎育을 박탈하는 결과로 되어

“重懲戒내린 敎授들 苦惱이해바라
健實한 自治活動은 계속 지원할터”

내려진 이번 정제는그
량이나 幅을 총장으로
서는 그대로 受容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고 밝히
면서『本人이 시집
에서 다시 대학의 敎
授會가 의결한 사항에
간여한다거나 용해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대
학의 自律性은 물론교
들의 自由權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점
그러이 일해하고 협
조해 줄 것을 동문들
에게 당부했다.

이어 趙楚琮은『이번
사태로 인하여 大學을
떠나는 학생들은 敎授
들의 裁罰을 고강제만
지 않을때 그 의미가
없다고 전제한후『이제
교수는 교수 자리를찾
아 학생에게는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발주 있는 의연함이있
음으로써 진실로 존경
받는 스승과 제자의관
계가 정립될수 있을것』
을 부탁했다.

확인할수 있었기에 다
시한편 김은 謝罪를드
린다고 하후『이 일을
계기로 心機一轉, 모교
가 세계속의 대학이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들어서 노력하면서 동
문들도 모교발전을 위
해 적극 힘쓰주 줄것』
을 부탁했다.

藥大女性동문의날
月桂會 주관으로 개최
한대총신 오정환이사 2
월 3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음. 한
하동 부회장 이사장
장 김원호 이사장
14일 주한대사 박정호
사 「한대 동문회」 창간
의 「한대 동문회」 주창
동무인 「한대 동문회」
회장 하성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다행히
이날 김원호이사(한대
부회 회장)의 주창으로
개회하였음. 한
하동 부회장 이사장
장 김원호 이사장
14일 주한대사 박정호
사 「한대 동문회」 창간
의 「한대 동문회」 주창
동무인 「한대 동문회」
회장 하성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다행히

藥大

藥大女性동문의날
月桂會 주관으로 개최[illegible]

49年 師大卒

醫科大學 12회

醫大12회同窓會(회장 蔡範錫)는 1958년의 醫大를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을 목적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初代 회장인 趙明河 동문(조명하)은 회장의 이 맡았었는데,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藥大13회同窓會(회장 洪性龍)는 1955년의 藥大를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藥學大學 13회

藥大13회同窓會(회장 洪性龍)는 1955년의 藥大를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 洪性龍 회장

고 「三水會」라는 골프모임을 통해서도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 蔡範錫 회장

문, 최부근, 吳俊植 동문(조준식)이 비인구파의 회장(이) 맡아 진행시키고 있다. 同窓會의 회원은 총 145명이었으나, 그중 6명의 작故, 현재 139명이며, 國內에 83명, 海外에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대부분이 醫藥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을 봉사하고 있다. 同窓會가 특히 힘을 기울이는 행사는 주

업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同窓會가 더욱더 두텁다. 同窓會가 13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藥業界

지난해

優秀동기회로 표창받아

重鎮으로 活動相 돈보여

히 정정기(정기)라고 하는 과장은 아들이 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 13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본진원 생활용품과 장신품,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한 발발이 있기 때문에 13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母校에 발전기금 천 5백만원 支援 卒業 30주 기념 「홈 커밍데이」

있는 30주년 행사준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회동회의 모임을 위하여 그는 그 기초를 다지는 데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同窓會 모임, 그중에서도 同窓會의 선진적인

「모임 탐訪」란에 소개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동창회보 편집실(전화 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同窓會에 대한 참여의식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同窓會의 행사로는 會員名簿의 발간이 있고, 30주년 기념행사에는 家族萬景을 그려서, 同窓會에 보내고 있다.

母校의 學内事態를 보는 우리의 見解

지난달 25일을 전후하여 모교에서 발생한 總長室 占據, 器物파손, 교수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라는 일련의 학내사태를 보고 우리 동문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1. 學校는 再學生들만의 것인가?

사회구조적인 여러가지 모순으로 인한 대학의 발전과 相反된 부정적 측면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學内の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자체를 용인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폭력은 목적달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학교시설물을 점거하거나, 교수를 인신공격함으로써 매사를 해결하려는 反知性的 思考方式은 하루속히 척결되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비단 후배재학생들의 대학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한 수많은 선배들의 대학이기도 하며, 천만년 民族知性的의 産室로 영원히 가꾸어져야 할 도량이기 때문이다.

2. 同門들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학관계자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절망과 비애를 안겨준 이번 사태를 맞아 후배들의 過誤는 질책하는 한편, 선후배 동문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기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교를 국제사회 속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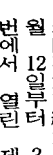
모교는 동문 모두의 대학이라는 인식하에서 재학생은 냉철한 자기 반성으로 진리탐구의 풍토를 조속히 회복해야할 것이며, 동문들은 배전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88년 7월 일

서울大學校同窓會 蔚山支部 理事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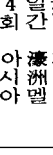
강 홍 섭 (工 科 大 學 17 회)	문 채 구 (醫 科 大 學 11 회)	이 철 배 (文 理 科 大 學 16 회)
곽 만 섭 (法 科 大 學 15 회)	박 정 래 (工 科 大 學 10 회)	정 민 수 (法 科 大 學 22 회)
김 명 관 (法 科 大 學 16 회)	박 청 수 (醫 科 大 學 15 회)	정 삼 도 (師 範 大 學 10 회)
김 석 기 (工 科 大 學 17 회)	신 경 철 (法 科 大 學 18 회)	정 우 모 (商 科 大 學 16 회)
김 영 화 (工 科 大 學 17 회)	양 희 열 (法 科 大 學 17 회)	추 수 욱 (商 科 大 學 11 회)
김 윤 영 (齒 科 大 學 13 회)	윤 대 욱 (文 理 科 大 學 14 회)	한 종 서 (工 科 大 學 13 회)
김 학 균 (藥 學 大 學 9 회)	이 돈 영 (醫 科 大 學 6 회)	
남 경 희 (工 科 大 學 10 회)	이 정 일 (文 理 科 大 學 17 회)	

(以上은 署名하신 理事名單이며
순서는 가나다順을 따랐음).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變動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29선언이후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최근의 사회법 개정에 도의적 의무를 수 있었다.

이것이 곧바로 법원에 대한 관심 이 일기 시작했다. 이 법원은 행정의 최

후히 司法府를 가리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원은 과연 얼마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왔는가? 선뜻 긍정적으로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유신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러가 지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수위 「외풍」이 일때마다 사법부의 면모는 조금씩 일그러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6·29선언이후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新任法院 崔在護

고 책임감을 받은 崔在護 護法院장직을 맡아 앞으로의 포부들을 밝히 보았다.

「建國 이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이 많았던 때는 일

만들 법관인사에 최대 한의 공정을 기할것임을 천명했다.

55년 모교 法大 3년 재학중 高試 7회에

고 있다.

그가 관서장직에 취임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려 호르느 내들이 불어 건네는 사람마다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불인제 건네야 하는 데 그지역 경찰서장 이 특성이 좋게 보이는 崔在護를 불려입어 건네줄 것을 요구 하자 아무 말없이 건

최연소수석합격崔在護 28년 법관생활중 24년간을 대구지방법에서 근무한 「大邱通」으로 아직도 현직에서 큰 신망을 받고 있다.

말이 적고 후덕한 사법관인 崔在護는 민중의 전형적인 법관으로 지방법관 근무 때의 일화 한탄만은 그의 텃밭하고 수수한 성격 그대도 대법관



장관사 시절부터 명판 결정을 작성한다는 평을 들어왔다.

82년 法院行政處 차

“同門들의 期待에 부응할터” 在學時 崔연소자로 考試합격

는 물론 在野에서도 크게 걸고 있다.

崔在護는 이를 의식하고 있는 듯 「訟務제도」 행정제도 등 제도에 걸쳐서 비민주적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崔在護는 또 司法施設을 확충,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간다고 하면서 내년 9월이면 高等法院이하 4개 법원 이 瑞草洞 새 廳舍로 입주하게 되며 大法院도 그 인근부지에 신축키 위해 현재 서울 市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교(慶北高) 때는 배구팀 주장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데만 능숙조만인 崔在護는 요즘도 테니스를 매일 즐기고 있으며 사법부 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정평이 나있다.

李會昌 朴禹東 대법관 이 모교 法大 同期. 가 가족으로는 75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부인 박용주(여사(51)와 사이 2남1녀를 두고 있는데 長男 세종군이 母校 社會大와 大學院을 졸업,父子동문 가족을 이루고 있다.

장관사 시절부터 명판 결정을 작성한다는 평을 들어왔다.

82년 法院行政處 차

장관사 시절부터 명판 결정을 작성한다는 평을 들어왔다.

82년 法院行政處 차

▲金東燮(60년 醫大卒) 長男 尙連(88년 法大卒) 軍과 南惠麟(6월 11일 오후 1시) 외환은행본점당에 서 화촉.

▲南廷泰(母校育大在) 軍과 金貞任(8월 7일 오후 2시).

▲崔承讓(88년 農大卒) 軍과 李惠順(8월 21일 오후 2시).

▲鄭夢準(7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15일 美政界를 둘러보고 귀로에 조지아주를 방문한 뒤 열리는 美민주당대회를 참관키 위해 출국.

▲朱炳德(79년 行政大學卒) 警察大學長 最近 海陽경찰대장에서 국립경찰대학장으로 임명.

▲金東燮(60년 醫大卒) 長男 尙連(88년 法大卒) 軍과 南惠麟(6월 11일 오후 1시) 외환은행본점당에 서 화촉.

▲南廷泰(母校育大在) 軍과 金貞任(8월 7일 오후 2시).

▲崔承讓(88년 農大卒) 軍과 李惠順(8월 21일 오후 2시).

▲鄭夢準(7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15일 美政界를 둘러보고 귀로에 조지아주를 방문한 뒤 열리는 美민주당대회를 참관키 위해 출국.

▲朱炳德(79년 行政大學卒) 警察大學長 最近 海陽경찰대장에서 국립경찰대학장으로 임명.

▲金東燮(60년 醫大卒) 長男 尙連(88년 法大卒) 軍과 南惠麟(6월 11일 오후 1시) 외환은행본점당에 서 화촉.

▲南廷泰(母校育大在) 軍과 金貞任(8월 7일 오후 2시).

▲崔承讓(88년 農大卒) 軍과 李惠順(8월 21일 오후 2시).

▲鄭夢準(7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15일 美政界를 둘러보고 귀로에 조지아주를 방문한 뒤 열리는 美민주당대회를 참관키 위해 출국.

▲朱炳德(79년 行政大學卒) 警察大學長 最近 海陽경찰대장에서 국립경찰대학장으로 임명.

▲金東燮(60년 醫大卒) 長男 尙連(88년 法大卒) 軍과 南惠麟(6월 11일 오후 1시) 외환은행본점당에 서 화촉.

▲南廷泰(母校育大在) 軍과 金貞任(8월 7일 오후 2시).

▲崔承讓(88년 農大卒) 軍과 李惠順(8월 21일 오후 2시).

▲鄭夢準(7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15일 美政界를 둘러보고 귀로에 조지아주를 방문한 뒤 열리는 美민주당대회를 참관키 위해 출국.

▲朱炳德(79년 行政大學卒) 警察大學長 最近 海陽경찰대장에서 국립경찰대학장으로 임명.

▲金東燮(60년 醫大卒) 長男 尙連(88년 法大卒) 軍과 南惠麟(6월 11일 오후 1시) 외환은행본점당에 서 화촉.

▲南廷泰(母校育大在) 軍과 金貞任(8월 7일 오후 2시).

▲崔承讓(88년 農大卒) 軍과 李惠順(8월 21일 오후 2시).

▲鄭夢準(7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15일 美政界를 둘러보고 귀로에 조지아주를 방문한 뒤 열리는 美민주당대회를 참관키 위해 출국.

▲朱炳德(79년 行政大學卒) 警察大學長 最近 海陽경찰대장에서 국립경찰대학장으로 임명.

▲金熙洙(49년 文大卒) 母校自然大교수 最近 校自然大교수 最近 校自然大교수

▲蔡汶植(48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7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關斗基(55년 文大卒) 母校人文大교수 最近 校人文大교수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尹繼燦(57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朴相鎭(57년 工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12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金鎮福(58년 醫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金主泰(69년 保健大學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金主泰(69년 保健大學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鄭昭盛(70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鄭昭盛(70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鄭昭盛(70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鄭昭盛(70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鄭昭盛(70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鄭昭盛(70년 文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丙基(62년 法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李英世(55년 商大卒) 本會理事·國會議員 7월 9일

헛별이 잘 드는 곳에
서 34다수랑 핀리
를 한다. 다섯째, 3월
부터 10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는 시비를 계
속하는데 고향복합비료
는 한 달에 한번, 액
肥는 2년씩 실시한다
로서췌, 병충해는 수시
로 가까이서 쳐다보면
서 진딧물·응애류 등을
잡아주고, 11월말이나
새순이 나오기 전
에 석회유황합제 20
30배액을 예방제로 뿌
려준다.

年會費내주시분

(新任理事 6. 20 ~ 6. 25 일 까지)
(一般會員 6. 1 ~ 6. 15 일 까지)

기사업처 醫大, 育大, 醫大, 大醫院, 經管大學院, 新聞大學院, 行政大學院, 環境大學院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會長團

- ▲會長 崔主編 100만원
- ▲副會長 李鍾賢 50만원
- ▲副會長 金相慶 50만원
- ▲副會長 張翼龍 50만원
- ▲副會長 朴容成 50만원
- ▲副會長 具平會 50만원
- ▲副會長 白樂院 50만원
- ▲副會長 姜信浩 50만원
- ▲副會長 李俊路 50만원
- ▲副會長 金善弘 50만원

常任理事

- ▲農大會長 沈鍾賢 20만원
- ▲法大會長 金性淳 20만원
- ▲商大會長 張禮準 20만원
- ▲獸大會長 全東龍 20만원
- ▲醫大會長 姜信浩 20만원
- ▲大學院會長 金道相 20만원
- ▲經大院會長 李孝益 20만원
- ▲新大院會長 金太文 10만원
- ▲行大院會長 俞尙根 10만원

理事

法科大學

- ▲李宇鎔 63 동화약품사장
- ▲安秉洙 64 변호사
- ▲張世綱 65 한양투자금융사장
- ▲鄭恩敦 64 삼영의스프레드대표
- ▲趙南煜 67 삼부토건사장
- ▲崔洛賢 68 계성제지사장
- ▲韓鳳珠 66 한국전력사장
- ▲玄明官 63 호텔신라전무

師範大學

- ▲金教俊 62 도서출판개문사장
- ▲金千洪 66 인천시교위교육감
- ▲南德祐 66 인천교대학장
- ▲吳培根 64 잠실고등학교교장
- ▲尹鳳連 64 홍지유치원장
- ▲李鍾鶴 64 서울전공(가)사장
- ▲李容勳 65 동자교육구청학부과장
- ▲趙利男 65 은평자외파리소전산부장
- ▲崔赫祥 61 이화산업(가)사장
- ▲河錫鳳 64 전한국방송광고공사장

商科大學

- ▲金昌秀 61 한일개발(가)부장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獎學사업을 비롯한 母校동기에 많은 財源이 소요되고 있는 同窓會에서는 가끔 적이면 各會員들께서 앞당겨 會費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任理事..... 10만원
- 監事..... 20만원
- 副會長..... 30만원
- 會長..... 50만원
- 會長..... 1백만원

一般會員

人文大學

- ▲金鍾賢 64 고려의대미생물학과교수
- ▲鄭雨英 65 정우영의대의원장
- ▲金建烈 63 서울대교과대학원장
- ▲宋圭鉉 64 동인의원장
- ▲朴鍾賢 60 부산부인과의원장
- ▲鄭正哲 62 덕산의원장
- ▲趙斗英 61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金勝錫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性信 64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復熙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尹錫求 67 충남의대내과교수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自然大學

經營大學

- ▲申榮均 65 남동치과의원장
- ▲朱寬哲 65 진에초의원장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家政大學

工科大學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李性信 64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復熙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尹錫求 67 충남의대내과교수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美術大學

- ▲金鍾賢 64 고려의대미생물학과교수
- ▲鄭雨英 65 정우영의대의원장
- ▲金建烈 63 서울대교과대학원장
- ▲宋圭鉉 64 동인의원장
- ▲朴鍾賢 60 부산부인과의원장
- ▲鄭正哲 62 덕산의원장
- ▲趙斗英 61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金勝錫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性信 64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復熙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尹錫求 67 충남의대내과교수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法科大學

- ▲金教俊 62 도서출판개문사장
- ▲金千洪 66 인천시교위교육감
- ▲南德祐 66 인천교대학장
- ▲吳培根 64 잠실고등학교교장
- ▲尹鳳連 64 홍지유치원장
- ▲李鍾鶴 64 서울전공(가)사장
- ▲李容勳 65 동자교육구청학부과장
- ▲趙利男 65 은평자외파리소전산부장
- ▲崔赫祥 61 이화산업(가)사장
- ▲河錫鳳 64 전한국방송광고공사장

商科大學

- ▲金昌秀 61 한일개발(가)부장

- ▲韓內武 65 심화한료사장
- ▲朴勝日 65 두산산업(가)대표
- ▲李相哲 60 국민은행장
- ▲李判永 63 신보창업투자(가)대표이사
- ▲趙旭正 67 정신임업대표
- ▲金道昇 65 (가)한림통상사장
- ▲黃昌淵 64 한국공회(가)사장
- ▲崔錫杰 64 대우경제연구소회장
- ▲李殷澤 62 조선호텔사장
- ▲崔海股 66 대림통상(가)사무
- ▲金炫植 66 동아출판(가)사장
- ▲金炫植 66 동아출판(가)사장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李性信 64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復熙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尹錫求 67 충남의대내과교수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李性信 64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復熙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尹錫求 67 충남의대내과교수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李性信 64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李復熙 66 서울의대병원신경정신과
- ▲尹錫求 67 충남의대내과교수
- ▲金錫求 67 원자력병원장

入試업무의 원활한 수행위해

하고 있다.